

일본, 필리핀과 FTA 체결 합의

일본은 현재 싱가포르,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바 있으며, 또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아세안(ASEAN)과 정부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1월 29일 필리핀과 FTA 체결에 합의하였다.

1. 경과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와 필리핀의 아로요 대통령은 2003년 12월 11일 도쿄 회담에서 2002년부터 시작한 양국간의 경제연대협정(EPA)을 근거로 하여 2004년 조기에 협상을 개시, 합리적인 기간내에 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양국 정상은 동 협정이 일본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간의 포괄적인 경제연대를 구축,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ASEAN과는 2005년 4월에 EPA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2004년 2월부터 양국 정부간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난 11월 29일 양국 정상이 회담하여 EPA에 대체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양국은 지금부터 협정을 완성하기 위해 조문 교섭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확인하였다.

2. 관련 분야

이 협정은 일본과 필리핀간에 물품, 인력,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여 쌍방간의 경제활동 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적 재산, 경쟁정책, 비즈니스 환경정비, 인재 육성, 정보통신기술 및 중소기업 등의 분야에서 양자간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인 연대를 추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있다.

양국은 협정이 체결되면 본래 가지고 있는 상호보완성을 발휘하고, 양자간의 경제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협상을 통하여 합의된 분야는 관세철폐와 같은 무역문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이르는 소위 경제연대협정(EPA)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있다.

- (1) 물품무역
- (2) 관세수속
- (3) 서비스무역
- (4) 투자
- (5) 인력 이동
- (6) 협력
- (7) 지적 재산
- (8) 경쟁정책
- (9) 상호승인
- (10) 비즈니스 환경정비

3. 농산물에 대한 합의사항

일본은 필리핀과의 FTA는 아시아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첫 번째에 해당된다. 그래서 일본 농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수입선 다변화와 필리핀 농가의 생활향상에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합의의 특징은 일본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발효이후에 재협약하기로 결정한데 있다. 쌀을 비롯하여 맥류, 유제품은 관세철폐에서 제외하였으며, 사탕, 소고기, 돼지고기, 파인애플 통조림 등은 재협약하기로 하였다.

필리핀의 관심품목인 파인애플은 경량품목에 한해 무세의 수입할당제도를 도입하여, 1년째 1,000톤에서 5년째 1,800톤의 할당량을 설정하였다. 또한, 현재 계절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바나나는 발효후 10년간에 여름은 현행 10%에서 8%로, 겨울은 현행 20%에서 18%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표 1 양국간 농산물에 대한 합의내용

	품목	합의내용
일 본	제외 품목	○쌀, 맥류, 유제품
	재협약 품목	○소고기, 돈육, 전분, 파인애플 통조림
	사탕	○협정 발효후 4년째 재협약
	닭고기 (11.9%)	○세율 : 8.5%로 인하 ○할당량 : 1년째 3,000톤, 5년째 7,000톤
	파인애플 (17%)	○경량 품목에 한해 무세 수입량 설정 ○1년째 1,000톤, 5년째 1,800톤
	바나나 (여름10%,겨울20%)	○소형 : 10년간 관세철폐 ○대형 : 10년간, 여름 8%로 인하, 겨울 18%로 인하
필리핀	포도, 사과, 배 등	○관세 즉시철폐

주 : () 내는 현행 세율

그리고, 일본의 수출가능성이 있는 포도, 사과, 배 등에 대해서는 발효 즉시 필리핀은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일본은 현재 ASEAN 10개국 중에서 필리핀 이외에 이미 싱가포르와 협정 발효중이며, 태국과 말레이시아와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으나 금년중에 합의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나머지 ASEAN 6개국과는 2005년 4월 개별적으로 협상을 개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시에 이들 국가와의 협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